

언론 사람

06
2021
VOL.252



04 인터뷰 人+人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06 Newmedia of the World
팩트의 빈곤과 픽션의 풍요,
그리고 비판적 무시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의심하는 용기,
'굴뚝마을의 푸펠'

22 미디어 이슈 진단
팩트의 타락

Contents

2021 June

- 04**
인터뷰 人+人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 06**
Newmedia of the World
팩트의 빈곤과 픽션의 풍요,
그리고 비판적 무시
-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편하지만은 않은 인생
-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돈조의 세계
- 12**
돋보기
바름과 비스듬함
- 14**
단어의 중력
단순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의심하는 용기,
'굴뚝마을의 푸펠'
- 18**
이달의 시
내일을 그리며 사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
-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 22**
미디어 이슈 진단
팩트의 타락
-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계간 <언론중재>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Oleg sumarokov <Sunflower in cloudy sky>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 등 경제적 충격이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되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 또는 불안을 겪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가 20·30대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언론  사람 6월호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를 만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Newmedia of the World>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허위 사실 판별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비판적 무시’ 개념을 알아 보고,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읽기>에서는 영국 왕실을 대하는 영국 언론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시>에서는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힘겹게 일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내일을 그린 신현림 시인의 ‘어떤 내일’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언론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소망해보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보여준 양극화 사회의 현실

Q 한 신문 기고에서 팬데믹의 장기화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코로나19가 삶과 죽음의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느끼셨나요?

A 응급실에서 근무하다보니 주로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봐요. 신변을 비판해 목숨을 끊는다던지, 병원비를 못 낸다던지 응급실에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보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분들 입장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게 돼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 방비를 위해 의료체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확진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환자 동선이 길어지고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증가했는데 그런 직접적 위해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졌다고 느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구하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육체노동을 하다 신체 부상을 입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Q 코로나19 이후 젊은 세대일수록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응급현장에서도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었음을 체감하시나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작가

저서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전한 날들> 등
2019년 제15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2016년 제15회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
침착하게 각자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언론에서도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요.”



A 자살 사건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더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데요. 다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던 기간에는 확실히 눈에 띄게 많다고 생각은 했어요. 갑작스럽게 집 안에만 있어야 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들이 젊은 세대에 더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Q 책 <만약은 없다>에는 메르스 사태 때 바이러스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담은 대목이 담겨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고충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진료하는 환자가 메르스 환자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에 대해 썼는데요. 그 때는 확진자 수에 비해 불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페스트, 스페인독감, 홍역, 사스, 메르스 등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사회의 대처 과정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되풀이 되어왔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역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때는 없던 음압실이 만들어지는 등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의료체계 개선은 인력이나 자원 분배,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편의에만 맞출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물론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시스템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자로서의 바람은 의료진들이 번 아웃되지 않게 현재의 고충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Q 몇 줄의 사건, 사고기사로 보도되는 죽음의 이면에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언론 보도와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신 이유가 있을까요?

A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를 직접 보게 되면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화재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로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느껴지진 않잖아요. 기사는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안 죽었을까, 어떻게 해야 고통이 없어질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어요. '정인이 사건'의 경우도 제가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본 충격이 커서 한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평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인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사 인터뷰나 방송에 출연해 말하니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사회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선 자살 문제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10배가 한 해 동안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환자보다 자살 의도자를 더 많이 만나죠. 어제만 해도 10명쯤 본 것 같거든요.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더 늘고 있어서 문제예요.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좀 느슨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살이 가진 사회적 계층적 문제가 있거든요. 우울한 상황에 있다가도 다시 돌아와 살 수 있으면 경제적, 사회적 힘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약자들이 더 취약하죠.

또 다른 하나는 노동 문제인데요. 최근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선호 씨 사건도 있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분들 대부분이 건장한 젊은 남성이에요. 코로나19 사망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 현장에 투입될 정도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문제여서인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심이 낮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본인 잘못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살과 산업재해 문제가 가장 관심이 필요해 보여요.

Q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를 대비해 우리 사회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일단 지금 꼭 필요한 일은 백신을 맞는 것이죠. 언론에서 백신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코로나19를 처음 겪는 만큼 백신에 대해서도 아직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좀 더 과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과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백신을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다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시민의식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팬데믹 상황이 오면 공포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죠. 결국 그런 마음이 혐오로 번지고, 혐오가 확대재생산 돼서 편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침착하게 각자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언론에서도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요. 또 지금과 같은 양극화 사회에서는 전염병 확산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팩트의 빈곤과 픽션의 풍요

노벨경제학
 상 수상자 허버
 트 사이먼이 1969년
 정보의 과잉상태가 펼쳐
 놓을 '주목의 희소성' 시대를
 예견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의
 현 실태가 지금과 같으리라곤 상상
 하기 어려웠다. 주목의 배분 문제가 전
 세계를 이토록 강렬하게 지배하게 될 것인지
 를 가늠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그것이 소셜
 미디어와 '팩트의 빈곤' 상태로 연결될 것이라곤 짐
 작하기조차 불가능했다.

팩트의 빈곤과 픽션의 풍요. 노스웨스턴대 파블로 보츠코프스키는 지금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¹⁾ 팩트에 소비하는 시간이 150초라면 넷플릭스라는 픽션 플랫폼에 쏟아 붓는 주목 시간은 150분에 이른다는 통계에 기초했다. 정보 소비자들이 팩트보다 픽션에 더 많은 주목을 할 당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허위와 허구에 미혹되는, 그런 풍경이 정보의 풍요가 바뀌놓은 미디어 소비의 새로운 질서라는 얘기다.

그리고 비판적 무지



보츠코프스키 교수는 뉴스 산업이 이러한 흐름을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이라는 자원 배분 경쟁에서 뉴스는 평가절하되고 픽션은 평가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목의 배분 관점에서 당분간 넷플릭스를 뉴스 미디어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팩트의 빈곤 상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한에서만 대안을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판적 무시(Critical Ignoring)는 팩트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대안운동이다.²⁾ 비판적 사고의 보완적 대안으로 탄생한 이 개념은 '주목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소개됐다. 어차피 픽션과의 주목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면, 팩트 아닌 허위정보에 소비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팩트에 대한 상대적 주목 시간을 늘려보겠다는 기획이기도 하다.

비판적 무시를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브라우저에서 새 창을 여는 작업이다. 위해정보로 채워진 사이트 안에 머물며 검증의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새 창 열기를 통해 더 넓은 오픈웹에서 신뢰 정보에 더 많은 주목을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웹이라는 공간은 이미 위험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저마다 주목을 얻기 위한 교묘한 유인 기법들을 웹사이트 안에 심어 넣고 있다. 그럴 듯한 정보 소스를 링크로 연결시키고, 허황된 논리로 무장한 리포트들을 곳곳에 배치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전형적인 팩트체크 기법인 'About Us' 페이지와 출처 투명성 분석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만성을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비판적 사고가 이들 위험한 사이트에 더 많은 주목을 할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는다. 팩트가 배분 받아야할 인지 에너지를 허위정보 관찰과 분석에 빼앗기는 형국이다.

미국 스탠포드대 샘 와인버그 교수의 최근 연구는 이 개념을 강조한 사례다(Breakstone, 2021). 그의 연구팀은 최근 3,446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과학과 관련해 팩트를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특정 사이트가 믿을 만한 출처인지 여부를 판정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약 96%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해당 사이트에 오래 머물며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했고, 단 2%만이 해당 사이트를 벗어나 새 창을 열어 해당 사이트가 특정 기업의 후원을 받은 사이트임을 검증해냈다고 한다. 하지만 비판적 무시 전략을 학습한 다른 집단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크게 역전되는 결과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판적 사고에 익숙한 인터넷 사용자들조차도 너무 많은 주목 시간을 허위 및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에 빼앗기고 있다. 이로 인해 팩트로 돌아가야 할 인지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뉴스 소비도 유사한 유형이다. 최근 검증되지 않은 타살을 주장하는 무속인들이 유튜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³⁾ 주목의 희소성을 간파하고 이를 가로채기 위한 그들의 자극적인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빈약한 논거를 바탕으로 온갖 추정이 덧쌓이면서 이전 논리적 반박조차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데이터나 근거를 겹겹이 쌓아 그럴듯한 사실을 만들어낸 찰스 포트의 상품처럼 그들의 음모론을 조목조목 반박하자면 상당한 인지와 연구 자원을 투자해야만 할 판이다.

이런 채널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채널에 오래 머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목의 비효율적 배분을 부추기는 행위다. 또한 합리성의 회의에 빠지는 길이며 자칫 반박 논리의 부재로 인한 무력감으로 신봉자들의 근거 없는 논리에 현혹될 개연성도 높아진다. 비판적 무시의 쓸모는 이런 데 있다. 음모론자들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으면서 주목이라는 희소한 인지 자원을 팩트의 시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만큼이나 비판적 무시가 중요한 건 지금의 인지 시장이 주목 자원의 배분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더 이상 무속인들의 허황된 논거에 우리의 인지 자원을 몽땅 빼앗기는 비효율을 방지해서는 안될 일이다.

1) <https://latamjournalismreview.org/articles/in-book-on-abundance-of-information-argentine-researcher-discusses-devaluation-of-news-and-revaluation-of-entertainment/>

2) <https://www.niemanlab.org/2021/05/to-navigate-all-the-junk-on-the-internet-you-need-powers-of-critical-thinking-but-also-critical-ignoring>

3)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112271368910>

<참고문헌>

※ Breakstone, J. (2021). Students' civic online reasoning: A national portrait.

※ Simon, H. A. (1969). Designing organizations for an information-rich world. *Brookings Institute Lecture*.



편 하지만 은

현대 사회, 적어도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이념 중의 하나가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사농공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는 믿음인 것인데, 영국에는 왕이 있다. 지금은 여왕이지만, 아무리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왕이라지만, 군주제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니 이견 공공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이러니다. 게다가, 태어나보니 매우 부잣집이더라 아니면 매우 가난하더라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상속세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만들고 애쓰지 않던가 말이다. 그런데 태어나보니 왕족인 사람들이 있는 거다. 왕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도 있다. 여전히 계층이 존재하는 사회다. 영국에서는 왕족 및 귀족을 가리켜 '상류'라고 하는데, 상류층을 일상생활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 특히 왕족에 대한 소식은 거의 매일 접할 수 있다.

코로나 시절에도 여왕 및 그 가족은 끊임없이 언론에 등장했다. 여왕은 격리생활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고 모범을 보인다. 고령의 여왕과 그 부군인 필립 공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봉쇄 당시 원칙적으로 가구 내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고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구 밖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을 묶어서 '버블'이라

고 불렀다. 여왕 및 그 측근은 정부 방침대로 소위 '윈저 버블'을 구성하여 버블 구성원이 아닌 이들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했다. 윈저는 여왕이 사는 성(城)이 있는 곳이자 왕가의 성(姓)이다.

특히 지난 3월 영국의 여왕의 손자이자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와 그 부인인 메건 마클이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를 하자 언론은 며칠간 이들의 소식으로 뒤덮였다. 당시 영국 일일 확진자가 5천 명이던 무렵이었으니 이런 상황에 저런 이야기로 며칠째 도배를 하다시피 할 일이나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고보니 이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식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매우 시끌벅적했다.

왕족이 대체 어떤 공식 업무를 수행하나 싶겠지만 왕족의 업무는 상당히 고단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여왕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누어 수행하는데, 국내외에서 영국을 대표하고 외교적인 순방을 한다. 공공기관 및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일도 왕실 가족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왕족이 대표 또는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선단체는 3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매년 2천 회 정도의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고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10만 통 정도의 편지에 답장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고 경비 및 주거비용과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데, 작년

안 인 생



에는 그 액수가 6천 9백만 파운드에 달했다. 한국 돈으로는 1천 1백억 원이 넘는 돈이다.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념적으로 군주제가 부당하다 아니냐를 떠나 이런 엄청난 세금을 들여 왕실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는 질문이 있을 법한데, 해리 왕자와 메건의 인터뷰가 있는 직후에는 특히 이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다. 여왕의 사후에 왕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존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만 없앨 것이냐의 논의다.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은 여왕을 사랑하거나, 적어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에 여왕의 사진을 걸어두고 거의 종교에 가깝게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호감이 왕실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1순위 왕위계승자인 찰스 왕세자의 경우 고 다이애나 비와의 이혼과 재혼 등의 사유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고, 찰스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는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등으로 공식적인 업무 수행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해리 왕자 역시 나치 완장을 차고 파티에 나타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을 하다가 겨우 건설한 이미지를 회복했던 참인데 결국 아내인 메건과 같이 왕실을 떠났고 왕실 가족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니 왕실 옹호론자 내지 존치론자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집에서 구독하여 보는 신문은 타임즈인데, 타임즈는 요즘 찰스 왕세자의 큰 아들이자 두 번째 왕위계승권자인 윌리엄 왕세손 및 그 부인 케이트의 소식을 자주 심는다. 자녀가 셋인 이들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라거나, 케이트 왕세손비가 코로나 와중에 백혈병 수술을 받은 어린 소녀의 부탁대로 분홍색 드레스를 입겠다고 약속했다거나, 윌리엄 왕세손이 본인을 뭐라고 부르면 되냐는 학생의 질문에 윌리엄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거나 하는 등의 친근하고도 모범이 되는 에피소드들이다. 아무래도 윌리엄 쪽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왕실과 결별한 해리 왕자는 최근 본인의 인생을 영화 트루먼 쇼와 동물원에서 사는 것을 섞어 놓은 듯한 것이었다고 묘사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실은 영국의 국가대표 연예인에 해당하는가 생각하기도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고 그 잘잘못에 대하여 가혹할 정도로 이러니저러니 비판해 대는 등 뜨겁다 못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그렇다.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 아닌데 안되었다 싶지만 또 저 막대한 세금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든다. 한국에서도 대중 및 언론은 연예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던가. 이들은 세금을 쓰지 않는 데도 말이다.



제3세계를 취재 다니다보면 여러 나라 부정부패를 보게 됩니다. 취재 초창기에는 그 광경이 제게 익숙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돈을 쥐야 일이 진행이 되니 불편합니다. 어떤 나라는 취재 비자부터 돈입니다.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를 가고, 카메라와 장비를 바리바리 들고 가야하니까 취재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 인식에 외국 취재진은 돈이 많다고 여기는 겁니다. 비싼 장비를 들고 다니니까요. 비자 비용 외에 영사 수고비며 기타 등등을 챙겨주면 비자 발급 속도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나라 이름 이야기하면 이후에 취재 봉쇄 될까봐 밝히지 않겠습니다) 취재 갈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취재비자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길게는 1년가량 걸린다고 하는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나라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비자 받을 때는 유럽으로 일단 가서 비자 받는 것이 편합니다. 그 나라의 비자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에 숙박을 잡고 해당 나라 대사관을 찾아가서 취재 비자를 신청합니다.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비자료로 대사관을 운영하기도 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대사

관 직원에게 물었더니 세상에 ... 한 달이랍니다.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꿈쩍없이 파리에서 한 달을 살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려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말이지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제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대사관 직원이 저의 표정을 살피며 “빨리 비자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파리에서의 한 달 호텔비, 식비, 체류비가 전자계산기처럼 돌아가며 “빨리 비자 받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사관 직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익스프레스 가능”이라고 속삭입니다. 급행료를 주면 빨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은 “50유로는 일주일 안에 주고 100유로는 3일안에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럼 200유로면?”이라고 물어보니 그는 “지금 당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음날 취재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마도 비자 자체가 거절되고 저는 파리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지요. 이를 밤 숙박비 정도로 비자가 나오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거래가 들어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을 주는 수밖에 없게끔 설계된 촘촘한 심리전에 저는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이 돈을 뜯어가는 세계를 “돈조”라고

전문용어를 만들었습니다. “Give me the money”, 즉 돈조. 이 돈조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당 나라 공항을 도착하면 새로운 돈조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 제 가방과 짐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입니다. 그들은 가방을 구석구석 뒤집습니다. 화장품을 꺼내서 냄새도 맡아보고 제 노트북을 켜고 이리저리 눌러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며 아주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반입 금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 저는 어떤 물건이 반입 금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반입 금지된 화학성분입니다. 가방 열어본지 채 30분도 안되었는데 이들은 내 스킨로션의 성분을 다 분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하루 종일 공항 밖으로 못나갈 판입니다. 이 돈조들이 처음엔 한 명이다가 두세 명으로 늘어갑니다. 시간이 늘면 머릿수도 늘어갑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 형편을 좀 봐줄래요? 얼마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인당 얼마라고 돈조 시세를 알려줍니다. 바로 지불하고 가방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와 상쾌한 공기를 맡습니다. 이게 돈조의 세계입니다.

언젠가 북아프리카 어느 나라 공항에서는 제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어휴, 술도 못 먹는 제가 마약이라니요. 어떻게 제 가방에 마약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화가 좀 났습니다. 이 돈조들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자존심 상하게 마약을 핑계 대니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제 가방에 마약이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뭘니까”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약탐지견이 제 가방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 저도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누가 나 몰래 마약을 가방에 넣었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을 탐색한 마약탐지견을 다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눈으로 마약탐지견이 가방 앞에 앉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자 세관원들이 어디서 발바리 비슷한 아주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개가 마약탐지견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방 앞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약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제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고 금방 세관 검사가 끝났습니다. 마약 없다고.

이렇게 저는 각종 돈조의 세계를 두루 섭렵하며 취재를 다닙니다. 저 만큼 다양하게 돈조에게 돈을 뜯겨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나름 이 돈조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똥을 뜯는 자와 뜯기는 자가 있는데 저는 뜯기는 자로서만 전문 지식을 가진 것입니

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등 각종 말도 안 되는 허가, 서류 등이 다 돈조의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각종 검문소도 지나가려면 돈조들에게 뜯겨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돈의 규모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금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그것입니다. 돈조. 심지어는 무장 세력이 지키던 어느 아프가니스탄 검문소는 영수증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돈조들에게 뜯기고 나서 “한국 가면 정산해야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장 세력 우두머리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나라 글자를 몰랐으나 한국 와서 번역해보니 나름 성의 있게 써준 돈조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돈조”는 이제 제 취재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취재 생활 20년 넘게 연마한 돈조 기술은 눈이 부십니다. 돈조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얼마를 제공하느냐 하는 축을 제대로 익혔습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누가 돈조 우두머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가 자연스럽게 제게서 돈을 뜯어가게끔 합니다. 각종 관공서, 심지어는 정부의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 경찰서까지 돈조의 세계로 잘 굴러갑니다.

가끔 저는 억울합니다. 돈조들에게 당하는 호갱님이 되어야 하는 내 신세 한탄도 합니다. 돈조들에게 안 뜯기면 되잖아? 이러실 수 있으나 한번 돈조들 겪어 보십시오. 돈조들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멈추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밤에 잠을 자는데 경찰들이 제 호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니 눈을 부라리며 저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가둬놓고 경찰들이 이상하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하, 바로 축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서 높은 사람 불러오라고 하고 그가 나타나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후덜덜 하는 가슴으로 호텔 돌아오니 매니저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경찰들이 부순 문짝 값을 물어내랍니다. 다음날 알게 된 전말은 현지 경찰과 호텔 매니저까지 다 짜고 외국인인 저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벌인 상황극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조가 대세인 나라에서는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취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돈조들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저에게 자부심이 있었으니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돈조를 안 당해봤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습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비록 돈조들의 호갱님으로 비굴하게 취재 다니지만 이 자부심을 가슴에 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취재진으로 취재 다니겠습니다.

바름과 비스듬함

斜而有餘,
사이유여,

不如正而不足也。
불여정이부족야.

비스듬하게 하여 넉넉한 것보다 바르게 하여 모자라는 것이 낫다.

서한(西漢)의 유향(劉向)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구절로, 바름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다. 바름에 대한 고찰은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계속되어 온 중요한 주제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참고할 만한 일화를 소개한다.

노나라 검루 선생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생이 죽자 증자가 제자들과 함께 조문하러 갔다. 그의 부인이 문에서

나오자 증자가 조문했다. 마루에 올라 선생의 시신을 보니 창문 아래에 모셨는데, 벽돌을 베고 벗짚을 깔았으며 솜옷은 (닿아서) 외피도 없었다. 삼베 이불을 덮었는데 머리와 발을 다 가리지 못하여, 머리를 덮으면 발이 드러났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드러났다. 증자가 말하기를, “이불을 비스듬하게 당기면 가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부인이 말했다. “비스듬하게 하여 넉넉한 것보다 바르게 하여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 선생께서 비스듬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비스듬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비스듬하게 하는 것은 선생의 뜻이 아닙니다.”

증자가 말했다. “오직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부인이 계시는구나.”(魯黔婁先生之妻也。先生死，曾子與門人往弔之。其妻出戶，曾子弔之。上堂，見先生之屍，在牖下，枕塹席藁，緇袍不表。覆以布被，首足不盡斂，覆頭則足見，覆足則頭見。曾子曰，斜引其被，則斂矣。妻曰。斜而有餘，不如正而不足也。先生以不斜之故，能至於此。生時不邪，死而邪之，非先生意也。曾子曰，唯斯人也而有斯婦。)

검루(黔婁) : 춘추시대 제나라의 은사로 바른 도를 지키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노나라에서 그를 초빙하여 재상으로 삼고자 했으나 사양했다.

사(斜) : 사(斜)와 사(邪)는 같은 자로, 위의 인용문에도 혼용되고 있다. 내[여(余)] 쪽으로 곡식[두(斗)]을 많게 한다는 의미에서 ‘치우치다’, ‘비스듬하다’, ‘바르지 않다’의 뜻이 나왔다. 사(邪)는 불교 용어인 ‘파사현정(破邪顯正)’에서 알 수 있듯이 ‘정(正)’의 상대어이다. “바르지 않은 것 [사도(邪道)]을 깨뜨리고 바른 것[정법(正法)]을 드러낸다.”의 뜻이다. <주역-건괘(乾卦)>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막고 그 참됨을 간직하며, 세상을 좋게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다.(閑邪存其誠，善世而不伐.)”라고 하여 인격 수양의 길을 제시했다. 안동 도산서원에 편역으로 걸려 있는 ‘한존당(閑存堂)’은 여기에서 따온 당호이다. 한존당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은 항상 바름과 참됨을 염두에 두고 생활했을 것이다.

정(正) : 본래 나라 국(口) 아래에 발 지(止)로 되어 있어, 잘못을 저지른 나라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친다는 의미에서 ‘정벌하다’, ‘바로잡다’는 뜻이 나왔다. 뒤에 ‘口’을 ‘一’로 단순화하여 지금의 정(正)자가 되었다.

온포(緇袍) : 부스리기 삼을 솜처럼 넣어서 만든 초라한 옷이다.

<<열녀전(列女傳)>>의 ‘열녀(列女)’는 도리와 절개를 중시했던 ‘열녀(烈女)’가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나라를 일으키고 가문을 빛낸 본받을 만한 여인들뿐만 아니라 악행을 일삼아 경계로 삼을 만한 여인들에 대한 기록도 있다.

검루의 부인은 평생 검루와 뜻을 같이했고 존중했다. 검루가 죽었을 때 시신을 덮은 형겅이 짧아, 머리를 덮으면 발이 드러났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드러났다. 증자가 이것을 보고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덮으면 다 덮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부인의 대답에 증자는 그저 감탄할 뿐이었으니, 그 감탄은 또한 망인에 대한 찬사였다.

그녀는 또 말하기를, “(망인은) 빈천에 근심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았다.(不戚戚於貧賤，不汲汲於富貴.)”라고 하여, 그럼으로써 청렴하

고 고상한 삶을 이룰 수 있었다고 칭송했다. 공자가 이미 그런 경지를 언급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더라도 즐거움이 역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하면서 부귀한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飯蔬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논어-술이(述而)>>

위의 글은 문맥상 가난을 즐긴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경지이다. 가난은 힘들지만 불안해하지 않았고 즐긴 것은 도이다. 검루의 삶은 공자가 자부한 안빈낙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최선의 다스림은 지도자가 ‘바름’으로 솔선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니, 그대가 바름으로 솔선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對曰。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 <<논어-안연(顏淵)>>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雖令不從.)<<논어(論語)-자로(子路)>>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가 바르지 못한 일을 일삼자, 공자가 다스림의 본질과 그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대학(大學)>>에 보이듯이 ‘수신(修身)’이 되어야 ‘제가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가 될 수 있다는, 덕치(德治)의 본질을 깨우친 것이다.

지금의 지도자들도 명심할 내용인데 명심하기보다는 외면할 것이 뻔하다. 비스듬히 치우친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 남까지 바르게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바른 마음으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수용하는 너그러움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길일 것이다.

단
순

그는 너의 소꿉친구였고 여섯 살에 부모를 잃었다.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렵듯이 들었으나 너는 너무 어렸기에 그 진상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기꺼이 맡아줄 피붙이가 없었던 탓에 그가 고아원으로 갔다는 말만 어깨 너머 들었다. 그가 떠나던 날 너는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밥을 먹다가 울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지만 여섯 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대부분의 세상사가 그러하듯 시간과 함께 기억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이십 년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너는 그를 다시 만났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너는 그를, 그는 너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스물여섯 살의 몸이었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여섯 살이었다. 가락국수 한 그릇을 나눠먹으며 너는 그

의 근황(近況) 아니 원황(遠況)을 물었다.

일곱 살 때 입양되어 아주 먼 나라로 갔어. 양부모는 나한테 로빈이란 이름을 붙여줬지.

그가 아홉 살 때 두 사람은 이혼했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 둘 다 로빈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양부와 양모의 집을 오가며 살았다. 양부모의 새 배우자들도 로빈을 사랑했다.

싫진 않았지만 뭐랄까, 복잡했어.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이니.

열여덟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한 번 바뀌었다. 양부와 그의 아내는 미니멀 라이프에 경도되어 모든 것을 처분하고 시골로 떠났다. 양모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양모는 수녀원에 들어갔다. 그 결과, 두 집안의 막대한 재산이 그에게 넘어왔다.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도 전에.

그래서 그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남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취직준비를 할 때 그는 기타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다녔다.

한 달 전에 한국으로 왔어. 마음이 가는 대로 돌아다니던 중이야.

그의 푸른색 뉴비틀 카브리올레는 너의 넓고 작은 차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다. 어머 예쁜 색깔이네, 네 말에 그는 마음에 들면 가져, 하고 대답했다.

두 달 전에 진단을 받았어. 길어야 석 달이래.

하지만 너는 스틱을 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선물을 거절해야 했다. 그는 너의 주소를 묻고 네 뺨에 입을 맞춘 다음 또 보자, 하고 훌쩍 가버렸다.

그해 겨울, 캘커타에서 그는 네게 엽서를 보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태 살아 있다고, 인도를 돌아다니다가 파란 눈의 집시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어느 날 새벽 눈을 떠보니 홀로 남겨졌다고, 그래서 기타 하나 돌려메고 온종일 건다가 별이 뜨면 달을 보며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인생이란 게 어느 날 문득 뒤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 있어? 모든 게 뒤죽박죽, 마음을 놓을 겨를이 없어. 이젠 쉬고 싶은 생각뿐이야.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잡은 것도 놓친 것도 다를 게 없어. 다 가지고 다 잃은 인생만 남았지. 나는 평생 변하지 않는 무언을 꿈꾸었는데. 아주아주 단순한 무언을.

홀 단(單)은 '식구들을 먹여(口) 살리기 위해 많은 낱을(十) 밭(田)에 나가 홀로 열심히 일한다는 데서 '홀'을 뜻한다고 한다. 또는 單이 돌팔매 같은 원시 무기를 그린 것으로 보고, 혼자 사냥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홀로'라는 의미가 된 것이라고도 한다. 순수할 순(純)은 가는 실 사(糸)에 진 칠 둔(屯)을 더한 것이다.屯은 풀이 싹트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사물의 으뜸, 깨끗한 실, 새로 지은 옷등을 의미한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사냥을 하지 않고 혼자 다녔는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왜 문자로 남았는지, 그 문자가 어찌다 순수할 순과 만났는지, '홀로 순수함'이 어떻게 하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너는 궁금했다. 무엇보다 너는 로빈의 노래가 궁금했다. 그는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그날 밤, 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유월의 달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너도 복잡한 것이 싫어서 홀로 삶을 지탱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혼자서도 충분히 복잡해지고 혼자가 아니어도 단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단순의 단서는 '홀로'가 아니라 '순수'일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로빈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또다시 이십 년쯤 흐른 다음에라도.

너는 먼지투성이의 상자에서 소꿉을 꺼내어 모래를 털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너는 말강게 닦은 소꿉을 내보이며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를 위해 간직해온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 삶이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예기치 않은 곳에 내팽개치고 한껏 들 어올렸다 떨어뜨리는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의 눈동자를 닦은 무언이 네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희가 공유한 어린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movie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의심하는 용기, ‘굴뚝마을의 푸펠’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저스틴 린, 2021)가 개봉하기 전까지, 올해 1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단 세 편뿐이었다. 코로나 이후 극장가 한파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 중 두 편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모두 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3위와 큰 간극이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유전자에 일정 관객 수를 탑재한 채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소울’(피트 닥터, 2020) 보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소토자키 하루오, 2020)의 흥행이 놀랍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예전만 못한 일본이지만, 애니메이션 강국으로서의 저력만큼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으나 지난달 말에 개봉한 ‘굴뚝 마을의 푸펠’(히로타 유스케, 2020) 또한 가상의 다국적

Power-People Of Chimney Town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완성도도 높을 뿐 아니라 작화 및 주제 면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을 보여준다.

‘굴뚝마을의 푸펠’(이하 ‘굴뚝마을’)은 스튜디오 지브리나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혹은 ‘귀멸의 칼날’과도 꽤 다른 차원에 있는 작품이다.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한 음악은 장면 장면의 분위기를 돋우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물론, 초반부 쓰레기 소각장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신부터 후반부 별이 빛나는 하늘까지 볼 거리도 풍성하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는 주제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어른들에게는 너무 친절해서 동어반복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화의 주관람츠이 될 어린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다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 볼 수 있다.

1년 전, 아빠가 행방 불명되는 아픔을 간직한 ‘루비치’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대신 굴뚝을 청소한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검은 연기 위로 별이 빛나고 있다는 상상을 하기 위해서다. 사실, 루비치에게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믿음에 가깝다. 아빠 ‘브루노’가 주말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에 별의 존재를 믿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는 ‘푸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루비치는 할로윈 데이에 알게 된 미스터리한 쓰레기 인간에게 푸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보살펴 준다. 그러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별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금기시된 이 마을에서 루비치와 푸펠은, 브루노가 그랬던 것처럼, 이단으로 몰리게 된다. 즉, ‘굴뚝마을’은 꿈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진실과 자유를 향한 용기에 관한 작품이다.

얼핏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 마을을 빼곡히 메운 굴뚝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굴뚝마을을 만든 사람들은 이곳이 나름의 유토피아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외부와의 단절을 꾀했지만 그 정책은 이 마을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마을로 전락시킨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굴뚝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 때문에 이 마을에 컴컴한 밤만 계속된다는 것이다. 루비치를 비롯한 아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마을 밖에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차단당한 채 살아간다. 상상과 믿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 사실과 불순한 사상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단심문관들은 폭력적 공권력의 상징이다. 오히려 마을을 둘러싼 바다에 괴물이 산다는 거짓말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 그들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강력한 거짓으로 진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세계사의 모든 독재정권이 공히 해왔던 일이다.

‘확인하지 않는 것은 확신하면 안된다’는 교훈과 함께 ‘굴뚝마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쓰레기 인간, 푸펠의 존재다. 그의 탄생과 굴뚝마을로의 방문, 루비치와의 관계에 대한 미스터리

는 작품 후반부에 밝혀지지만 굳이 각종 쓰레기로 이 캐릭터를 만든 것은 의미심장하다. 푸펠은 비록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비한 전우주적 힘이 만들어낸 심장 때문에 생명을 얻고 루비치를 만난다. 처음에는 냄새 나는 잡동사니에 불과했던 그가 이 마을의 폭력적 행정에 의문을 불러일으

키고, 음모를 파헤치게 하며 루비치를 도와 별과 낮을 되찾아준 것이다. 푸펠이 사회적 약자에서 구원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루비치가 성장하는 과정과 발을 맞춘다. 내셔널리즘이 강한 일본에서 공권력의 권위와 기존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굴뚝마을’의 메시지는 무척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보고 들은 것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치와 친구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어놓는 것처럼, ‘굴뚝마을’의 작가도 사회의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세대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BBC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가 정확히 예견한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끊이지 않고 극우, 극좌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 비단 일본에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내일을 그리며 사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

어떤 내일

신현림

내일은 아무도 자살하지 않는다
 내일은 아무도 배고프지 않는다
 내일은 힘겨운 일 찾기도 없고
 누구든 고된 일로 울지 않는다
 삽과 펜도 물고기처럼 숨을 쉬고
 내일은 에어컨 수리 기사가
 난간에서 추락하지 않는다
 내일은 자폭 테러와 어떤 총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내일은 야채 장사 할머니도 점포를 얻을 것이다
 내일은 외로워 떠는 이를 껴안아 줄 것이다

잃어버린 죄의식의 안경알을 되찾아
 가슴을 치며 반성하는 이들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 여기는 내일만큼은
 죽음이 쌓여 만든 내일만큼은
 없을지도 모를
 내일만큼은

- 『반지하 앨리스』(민음사, 2017)에서 -



인간들이 기나긴 진화사 속에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신적 세계는 '사랑'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인간들이 집단적 존재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정과 포용의 작동기제이고, 희망은 인간들이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며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밝은 꿈의 인력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쓰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랑'의 힘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고단한 오늘을 마감하며 일기장을 뒤적이고, 계획표를 점검하고, 추억의 과거를 불러내 보는 것도 '희망'의 불빛이 이끄는 오래된 힘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에게 가장 난감한 것은 '사랑'과 '희망'의 힘을 차단당하거나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가 살아있는 한, 인간들은 어떤 역경과 혼돈 속에서도 주변을 살피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달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신현림(1961~)의 시 <어떤 내일>은 이런 '사랑'과 '희망'의 뿌리를 만나보게 합니다. 사랑도, 희망도 만들어진 인간사의 한 정신세계에 불과한 것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생존의 힘과 더불어 인간다움의 품격을 지키게 하는 원천입니다.



저는 이 시 속에서 신현림 시인이 전해주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의 삶과 시적 여정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개인적인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신현림 시인의 첫 시집에 해설을 쓴 바 있고, 한 사람의 평론가로서 그의 삶과 더불어 시에서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남다른 마음으로 아끼며 바라보아 온 경우입니다. 시인과 평론가의 소중한 인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신현림 시인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것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은 경험의 콘텍스트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의 탄력을 받으면서 매우 강한 울림을 동반합니다. 그는 시인으로, 사진작가로, 사진과 시를 융합하는 예술가로 그리고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 정말 뜨겁게 살았습니다.

이 시가 수록된 시집의 제목인 『반지하 앨리스』는 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며, 그는 반지하 앨리스의 우울한 삶과 내면을 사랑과 희망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 시인입니다. 그런 그의 승화와 전변의 시적 언어가 그의 시 <어떤 내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현림 시인은 <어떤 내일>에서 내일이 상징하는 미래의 참다운 사랑과

희망의 장면을 동화처럼 그려보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자살하지 않고,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아무도 일거리를 구하기 어렵지 않고, 누구도 고된 일로 울지 않고, 삽과 펜조차도 물고기처럼 숨을 쉬고, 에어컨 수리기사도 난간에서 추락하는 일이 없고, 자폭테러와 총소리도 들리지 않고, 야채 장수 할머니도 어엿한 점포를 갖고, 외로워 떠는 이를 누군가가 껴안아주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의식을 찾아서 거울처럼 닦아놓고, 그 되찾아 닦은 거울로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사를 통찰하는 시인답게 이런 내일을 단순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 내일이란 사람들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불신을 보냈던 내일이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쌓여서 만들어진 내일이며, 아예 다가오지도 않을 그런 내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어떤 내일'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신현림 시인이 소망하는 그런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사를 발전시켰다고 하듯이, 미래의 사랑과 희망을 사실처럼 믿는 인간의 능력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뉴스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5월 7일 활동을 마쳤다. 지난 2월 6일 출범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 선거기사 37건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위반유형별로는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22건(59.5%)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유형별로는 여론조사보도가 18건(48.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결정문 게재 1건,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3건, 주의 25건, 권고 7건이었다.

1인 크리에이터 대상 분쟁예방 교육
실시

위원회는 5월 24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분쟁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인)격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특별한 법률 상식(저작권)', '유튜버 분쟁사례와 언론중재위원회'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에 약 30명이 참여했다.

「2020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발간

「2020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이 5월 31일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언론조정사건의 처리 현황 및 주요 사례가 선별 수록됐다. 사례집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ac.or.kr>)에서 볼 수 있다.

Focus



창립 4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5월 2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특별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재진 한양대 교수가 '준사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에 대한 성찰과 제언'을,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입법과제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강항원 김·장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위원 동정

김경희·정은령 위원,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참석

김경희(강원중재부·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정은령(서울제4중재부·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장) 위원은 5월 14일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팬데믹 시대, 언론보도 신뢰성과 팩트체크의 역할’ 주제 세션에 참석했다. 김경희 위원은 세션 사회를 맡았고, 정은령 위원은 ‘한국 언론의 사실검증, 현황과 과제-SNU 팩트체크 4년의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윤영미 위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 참석

윤영미 위원(서울제8중재부·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은 5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위원은 소비자 편의 및 탄소 중립정책 등을 고려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노신 위원, ‘천안의 역사와 올드타운 조성 정책토론회’ 참석

이노신 위원(대전중재부·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은 5월 11일 천안시와 천안시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천안의 역사와 올드타운 조성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천안의 관아와 행궁을 복원해 올드타운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진 교수는 “현재의 위원회 독립성을 유지하되 인적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용성 교수는 “언론피해구제의 측면에서 다른 미디어법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도 언론중재법에 담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재원 마련 방안, 기사의 역사성을 고려해 원본은 보존하면서 열람차단을 통해 피해구제 하는 방안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행사 영상은 유튜브(<https://youtu.be/BQjUm83AR4Y>)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팩트의 타락

근래에 ‘팩력배’란 말을 듣고 어안이 병병했다. ‘사실만 강조하는 사람’,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단순한 축약어가 아니라 ‘fact+力輩’가 연결된 신조어였다. 용례도 다양하다. ‘팩트폭력’은 기본이고, 미사일에 빗대어 ‘팩트리어트’도 등장했다.

세상에, 팩트가 폭력의 도구로 쓰일 줄이야!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한다’는 유의 말과는 결이 달랐다. 팩트의 추락이자 타락이 아닐 수 없다. 팩트를 숭앙해온 전직 언론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폼생폼사(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에 빗대 ‘팩생팩사’라는 말을 사자성어처럼 폼고 다녔기에 더욱 그러했다.

예전 기자들은 작은 팩트 하나를 건지기 위해 폼을 많이 팔았다.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전화를 돌리고, 여기저기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다. 여러 팩트를 열심히 모으면 진실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봤기에 그랬다. 능력이 모자라 제한된 팩트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팩트를 선별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다.

팩트에 승부를 거는 이유는 단 하나, 데스크의 검증 때문이다. 기사를 올리면 20년차 정도의 연륜을 가진 부장이 매의 눈으로 들여다봤다. 조금이라도 허술하거나 비약이 있으면 끝까지 물었다. 디펜스를 못하면 “더 취재해 봐!” 한 마디를 차갑게 던지면서 기사도 함께 던져준다. 사나운 데스크는 육두문자까지 날린다.

그럴 때 사실과 진실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점 하나는 좌표지만 점 두 개를 이으면 방향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팩트가 늘어난 만큼 진실에 근접하는 걸까. 진실은 누가 증명하는가. 진실은 하나뿐일까. 기자가 아는 사실은 진실의 몇 프로쯤 될는지.

고민이 깊어갈 때 요한복음의 ‘간음한 여인’에 대해 강해한 글을 읽었다.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잡혀 끌려온 여자를 놓고 율법학자는 “모세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예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고 하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더라는 이야기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푸생의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자’(그림)를 보면 왼쪽 사내 둘은 거의 사색이 되어 현장을 빠져나갈 참이고, 오른쪽 무리 역시 서로 이탈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둘이다.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버렸다는 것. ‘진실’도 둘이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을 넘어 간음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 끌려온 여인은 용서를 받았고 도망친 사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나는 이 예화를 읽고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어렵게 정리했다. 칼 같은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데스크가 된 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후배들을 독려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와서도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려는 언론인의 노력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 성실한 기자와 간단한 데스크가 있다면 함량 미달의 기사가 애초에 출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에 눈 감고, 진실에 무심한 언론은 믿을 수 없다. 언론이 신뢰가 낮아진 데에는 부실한 기사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신문에서 부록으로 마구 제작하는 섹션, 언론사 이름으로 남발하는 상(賞)이 문제인데, 이 부분까지 언급하면 ‘팩력배’로 욱먹을까 싶어 조심스러워진다.

Nicolas Poussin, 'Christ and the Woman Taken in Adultery', 1653, Louvre, Paris.



키 워 드 로 보 는 4 0 년 사

계간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름을 딴 계간지 <언론중재>는 1981년 겨울호를 시작으로 40년의 위원회 역사를 함께한 발간물입니다. 2021년 봄호까지 총 158차례 발간된 <언론중재>는 국내외 언론법제 관련 이슈와 언론 윤리 등을 다루는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언론중재>에 수록된 글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될 만큼, <언론중재>는 국내 언론법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담고 있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중재>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언론법제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멀티 플랫폼 등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기술이 이야기하는 법적 쟁점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법제 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언론중재>에서 확인해보세요!

* 이재진, 박성순(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커뮤니케이션 이론>, 11(3), 213-260.

